

제 229 호

예수 부활 대축일

1977. 4. 10

숲 정 이

발행인	김 종 택
인쇄인	범 석 규
주간	조 심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 1977년 부활 메시지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 11, 25)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친히 十字架를 지고 正義의 길을 걸으셨으며, 목숨을 걸고 眞理를 증거하셨고, 生命을 다하여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처럼 정의를 실천하고, 진리를 증거하며, 생명을 바쳐야 하겠습니다.

더우기 오늘과 같이 制度的으로 非人間化되어만 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不義와 不正과 미움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대신 眞理와 正義와 사랑을 힘차게 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부활 성야에 밝혀진 촛불처럼 우리 스스로의 몸을 사랑으로 불태움으로써 이 歷史의 오밤중을 밝게 비추어 주는 영광된 復活의 등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本文 中에서)

김 재 덕 주 교

부활축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알렐루야의 부활송가가 온 누리에 메아리치니, 만상은 온통 새생명으로 약동하고 있습니다. 소생하는 대자연과 더불어 그리스도는 과연 부활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제압했던 죽음의 승리가 아무리 확고하였을지라도 “나 3일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루카 18, 33) 말씀하신 하느님의 말씀보다는 더 확고부동할 수 없었기에 그리스도는 과연 미리 말씀하신대로 부활하셨습니까.

무수한 사건들로 점철된 구원의 역사는 이제 옛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새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그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종말적 구원의 완성을 향해 길이 계속될 새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역시 평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죽으신지 3일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으려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모르는 천사에게 라면 죽음이 오히려 신비일지 모르나, 죽음을 아는 인간에게는 죽음이란 부활은, 확실히 신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진리는 세기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무수한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희생과 선혈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치 밝은 태양빛과도 같이 엄연히 증명되어 왔으며, 오늘에도 부활의 현의는 그리스도 신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우리는 왜 기뻐해야 합니까? 부활은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며, 생명은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봄을 맞아 파란 새싹을 보고, 생명의 소생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화초가 자라고 어린이가 커감을 볼 때, 생명의 성장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겨레가 잘 살고 나라가 번영함을 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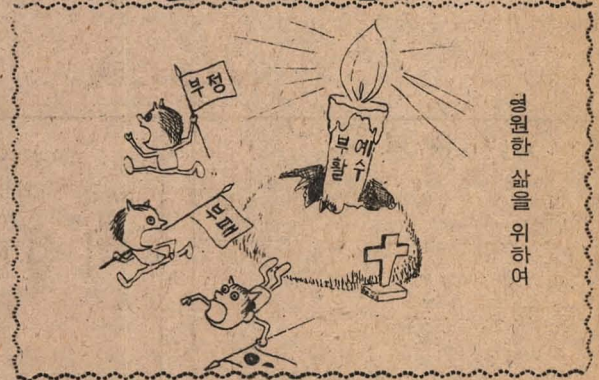
생명의 약동을 기뻐합니다. 예술가의 사명이 모든 것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아 얻는 것이라면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은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찾아 얻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생명과 기쁨을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부활의 현의에서 찾아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이는 죽었을지라도 살 것이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이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요한 11, 25)하고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부활이 주는 생명과 기쁨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즉 주님의 부활이 반드시 십자가의 시련을 전제로 하듯이, 부활의 기쁨과 생명 또한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대와 조소와 박해속에서도,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이를 실천함에서 얻어진 기쁨이며, 이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줌으로써 비로소 얻어진 귀한 생명입니다. 사순절이 없는 부활절이 있을 수 없고, 수난과 죽음이 없는 부활 또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수고 없이 결실을 거둘 수 없고 싸움

(2면에 계속)

숲 정 이 산책



(2) 순 정 이

없이 승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우리의 죽음은 이미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치욕의 죽음과 영광의 부활을 보고 빠스카의 신비를 발견했으며, 또한 현재 인생살이에서 당하는 모든 괴로움 중에서도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주의 부활하심을 굳세게 믿나이다」하고 더욱 힘차게 신앙의 신비를 의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기쁜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또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 끝까지 온 인류에게 전해져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은 그척 사육제를 지내듯 사람들에게 일시 흥분된 축제의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그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활의 기쁨은 실로 엄숙한 기쁨이요, 죽음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실재를 직시하는 심각한 기쁨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통한 부활, 시련을 통한 기쁨, 이 역설적인 부활의 기쁨은 실로 엄청난 기쁨이기에 또한 그만큼 귀하고 나누기가 힘든 기쁨입니다. 매사가 순조롭고 즐겁기만 할 때 애통의 정을 느끼기란 어렵듯이, 근심과 고통의 인생살이에서 부활의 심오한 기쁨을 깨닫기란 진정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인간의 눈으로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는 분명 패배했으며 그의 제자들 또한, 실의와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보다 훨씬 강한 것이었기에 죽음을 이기고 무덤속에서 생명을 솟구쳐 올릴만큼 모든 것을 승리로 이고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절망과 실의와 좌절에서 진저시켰습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활이 주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인류와 함께 나누기 위하여 부활을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을 같이하며, 인간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현해야 하겠습니까 「갈이요, 진리요 생명이신」(요한14,6)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친히 십자가를 지고 정의 길을 걸으셨으며, 목숨을 걸고 진리를 증거하셨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처럼 정의를 실천하고 진리를 증거하며, 생명을 바쳐야 하겠습니까.

머우기 오늘과 같이 제도적으로 날로 비인간화 되어가는 사회속에서, 우리는 불의와 부정과 미움을 깨끗이 씻어 버리고, 대신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힘차게 펴나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는 부활성야에 밝혀진 촛불처럼 우리 스스로의 몸을 사랑으로 불태움으로써 이 역사의 오밤중을 밝게 비추어 주는 영광된 부활의 등불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1977년 부활절에

〈천주교 전주교구장〉



이래서는 안되는데

교구 평협(회장 曹成浩)이 주최한 사순절 특별 강연회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매일 밤 7시반에 군산(둔을동 성당), 이리(창인동), 전주(중앙)에서 각각 있었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갖는 사순절 특강에 김재덕 주교는 「소위 政敎분리 원칙의 진상」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 주교는 「인간 공동체의 현세적 공동선을 추구하는 政治와 인간의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宗教는 서로 구별될 따름이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다」고 말하며 「政權이 교회 내부의 고유한 영역인 신앙문제 등에 간섭해서는 안되고, 敎會도 정부의 고유한 기술적 분야에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년에, 조국과 민족을 위한 크리스찬 양심으로 발언하고 기도한 소위 3·1절 명동사건으로 구속된 성직자를 위한 기도회가 한국 주교단이 인정하는 정의 평화위원회(正平)의 주관으로 지난 3월 1일에도 있었던 바, 당국의 지나친 간여로 사제들의 기도회 참석이 전국적으로 저지되는 불행한 사태가 있었음은 한국에서의 信敎自由 문제의 근원적인 면이 의심되는 심히 유감된 사태」라고 말하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서정쇄신 작업은 매우 잘하는 일이나, 큰고기는 그물까지 걸어가고 중어(中魚)는 그물을 찢고 나가며 송사리만 그물에 걸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최근에 들어난 초대형 부조리(超大型不條理)를 예로 들어 지적했다.

끝으로 김주교는 「참된 信仰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殉敎까지도 불사해야 한다」고 말해 강연회에 참석한 이들을 숙연하게 했다.

사실, 한국적 현실에서의 「소위 政敎분리 원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신앙인이 그 「진상을 꼭 알아야 할 과제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강연회장에는 꼭 앉아 있어야 할 낮은 얼굴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강연회 참석이 참석자의 신상이 커다란 문제를 던져 주기 때문일까? 자꾸만 과거의 역사-이조시대의 박해, 일제시대의 박해, 6.25의 수난, 자유당 시절의 수난-가 뇌리를 스칩은 왜일까? 그래도 우리 신자들은 순교자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복자찬가〉를 즐겨 부르는데... 아니면, 역시 천주교는 마음이 나약한 여성들이나 믿는 종교인가? 아니면, 광고 가 될 피어서인가? 어쨌든, 여러가지 각도에서 분석해 보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다.

최근에는 〈순정이가〉 본당이나 공소, 또는 개인적으로 구두하는 분들의 손에 제대로 쥐어지지 않는다는 소식까지, 너무 많이, 들린다.

정말 이래서는 안되는데...

감사합니다.

지난 3월 30일, 저의 숙모님 백 발바라께서 천주님 어전에 불리움을 **말씀**으로, 신부님과 사도회장님 그리고 여러 **회장님**과 **교형자매**들의 뜨거운 협조로 무사히 장례예절을 마치게 되어, 우선 **순정**이를 통하여 인사 올립니다.

정읍군 정주읍 시거리
친척대표 오귀문 올림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영 교우집으로!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사진기계·사진재료 도산매◎

태 광 사

유영문(가이다노)

전주시 중앙동 3가 67

전주 우체국 후문 앞

☎ 2-6346

□ 부활 메시지 □

참 삶의 의미찾아 人間回復을

김 수 환 추기경

현대세계의 문제는 물질의 힘에 인간이 자신의 발전과 번영, 평화와 구원의 문제를 송두리째 내맡길에 있다. 인간은 자기 존재와 삶의 의미까지도 물질적 가치에서 평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자신의 힘이나 물리적 힘을 숭배하는 가운데 결국 인간은 스스로 비인간화(非人間化)와 멸망을 재촉한다.

십자가 없는 곳에 부활이 없다. 마찬가지로 수난의 아픔과 상처없이 부활을 증거할 수 없다.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불빛을 밝혀야 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현실사회 속에 삶의 참된 의미와 희망을 불어넣어야 한다.

이는 바로 비인간화로 죽어가는 인간을 다시금 인간답게 부활시키는 과업, 인간회복의 과업이다. 십자가없이 우리는 인간회복과 부활의 과업을 이룩할 수 없다. 빛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랑없이 우리는 새로운 삶의 길을 개척할 수 없다. 우리의 이웃, 그중에서도 불우한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들, 시련과 박해를 무릅쓰고 진리와 정의의 위해 투신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없다.

(東亞日報 4월 5일자 7면에서)

復活의 길을 살아야

-가톨릭 시보 社説

크리스찬은 예수 부활의 길을 살아야 한다.

첫째는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영(靈)으로서 우리 안에 영원히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 부활로 인하여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役事)하심을 굳게 믿는 것이다.

둘째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것, 즉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묵은 사람에서 죽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한가지로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희망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셋째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길이다. 이 세상의 가장 미소하고 보잘것없고, 불쌍하고, 억압당하고, 불의하게 박해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 마치 예수께서 항상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서계셨던것과 같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봉사할 수 있는 자세와 기개가 오늘의 교회에서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된다.

(가톨릭 시보 4월 10일자)

요십이 (193) 김병호



□이전 안내□

성원약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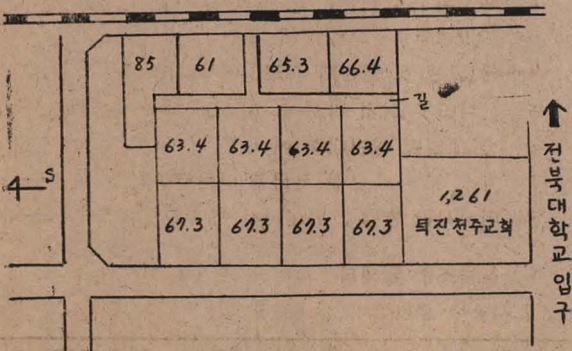
성원 표(스테파노)

□ 태평동 전매청 좌측
200m지점
전화 ③ 5780

부지 분할 매매 공고

전주시 덕진동 1가 1261~6번지 내의 부지를 아래와 같이 분할 매매합니다.

□문의처 : 덕진 천주교회(전화3-2182)
□기 한 : 1977년 4월 13일



□개여 안내□

건축 상담 환영!!!

설계·감리·허가 수속

신원 건축 연구소

1급 건축사
김 철 수(김규<연>)

☆전주 가톨릭 센터 220호실
전화 3-7780, <야간>3-1449

☆새로나왔다! 삼화운수 보일러 ☆

☆특징 - 주물로 되어있습니다
- 특허원 제 6302호 제조승인 제 8호
- 형식승인 제 1-1004-242호

부 활 상 회

대표 주 원 철(야고버)

□각 지방대리점 구합니다

□전주시 전동 3가 26-17 (전화 ②2143)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춘계 주교회의(11-15일) 주교님들을 위해서 뜨거운 기도를 바칩시다.
"지혜와 굳센의 성신이며, 한국 주교단에 임하소서"
 2. 사제 양성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폐지 저금통을 본당에 봉헌 합니다.
 3. 혼인 문제 상담일(11일<월>) 오전 10시-12시, 오후 2-5시)
 4. 염기봉 신부님 위한 환송회(11일<월>) 오후 6시, 가톨릭 센타 식당, 회비 2,000원)
교주내 모든 신부님들을 초대합니다.
 5. 가톨릭시보 수급 사원으로 박노한(요한 돈보스꼬)씨가 수고하십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순정이 발송 사고가 많습니다. 편집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 문정현 신부님께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냅니다.
주소... (601-81) 경남 김해군 대저면 대저리 719번지 김해교도소 내, 8번 문정현 신부님 귀하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서영복
보좌 신부 서진익
사도 회장 이복석

1. 예수부활 대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 우리아 릴레회 : 10일 오후 2시, 강당
3. 사제양성 후원용 저금통 봉헌 바람
4. 주일학교 부활 대축일 미사 : 10일 오후 2시

※ 감사합니다

- 감사헌금-김형택(바오로) 50,000원
- 부활대초 기증-이아베스
- 지난주 봉헌금 : 139,286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중
사도 회장 박중용

1. 신용조합 릴레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내일부터 미사시간 변경 : 주일-오전 6시, 8시반(학생미사), 10시(공식미사), 오후 3시반(아동미사), 오후 7시반
평일-오전 5시반, 오후 7시반(월·금제외), 금요일
오전 10시(어머니미사)
3. 반상회 : 우아동 애덕반(반장-윤 아가다), 15일 오후 8시
4. 견진성사 : 5월 15일(일), 견진 받으실 분 늦어도 5월 1일까지 신청바람
5. 새로 세례 받으신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 52,11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1. 부활절 제대 꽃, 초봉헌 : 서 말가리다씨
2. 영세식 : 9일 저녁미사 후(환영식-10일 공식미사후)
3. 부활절 모범어린이 표창
※특별 어린이 교리-참석 아동에게 부활달걀선사

- 불우 이웃돕기 헌금 : 9,220원
- 지난주 봉헌금 : 46,88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조성호

1. 신자들의 기도 : 박흥기, 홍안나, 양규철, 신미량, 장상현
2. 축! 영세자 환영식 : 오늘 공식미사 후

3. 성우회 릴레회 : 공식 미사후
4. 합동 감사미사 : 오늘 공식미사에
5. 사제양성 후원용 저금통 봉헌 : 부활절 미사에
□ 축 결혼! 김효택(베드로)군, 박금옥양-오후 2시
이정승군, 송혜순(뜨레첸시아)양-17일 오후 3시
□ 지난주 봉헌금 : 43,01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유현택
사도 회장 박장준

1. 선교주일 L·M회의 : 공식미사 후
2. 반상회 : 5반-12일, 6반-13일, 7반-14일, 8반-15일
3. 부활판공 성사 못보신분 빠른시일내 보세요
4. 교회살림 위한 교무금 조속히 바칩시다
5. 학생회 춘계소풍 : 17일, 전원 참석 바람
6. 신용조합 릴레회 :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37,860원

(순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1. 사제양성 후원용 저금통 오늘까지 사무실에
2. 박 엘리사벳 여사께 감사드립니다
성당 외부 정원에 아담한 성모상 기증
3. 오늘 부터 주일만 아침 6시반 미사 (이외는 종전과 같음)
4. 재정분과 위원으로 배재철씨가 수고하시겠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 80,26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한기
보좌 신부 김유석
사도 회장 유성중

1. 자모회 : 10시 미사후
2. 장우회 : 저녁미사 후
3. 성가정회 : 월요일 오후 2시
4. 중·고생 첫 영성체 교리 : 매일 저녁 7시
5. 근심하는 이의 위로 L·M : 500차 기념행사
6. 중·고팀별 웅변대회 예고
7. 사제 양성 후원용 저금통 다음주까지
8. 미사시간 변경 : 아침미사-5시반 저녁미사-8시,
<주일날 중·고생-8시반>
9. 신용조합 릴레회 : 14일 오후 8시
□ 지난주 봉헌금 : 133,680원